

중국은 한국인에게 무엇인가?

한반도미래포럼 천영우

1. 동아시아 현 상황 진단

- 미.중간 패권경쟁

- 중국의 부상과 힘을 이용한 공세적 팽창정책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충돌

- 시진핑의 '도광양회' 폐기와 '중국몽' 추구가 미.중간 전략적 경쟁 가열

- 중국의 패권적 횡포에 위협을 느끼는 국가들은 미국과의 안보협력 강화를 모색

- 중국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 미.중 사이에서 중립적 입장을 취하려는 국가도 등장: 필리핀 등

2.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

- 다시 역사의 기로에 서다.

-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국운을 좌우

- 120년전 천하대세를 잘못 읽고 전략적 안목도 없이 우왕좌왕 하다 망국을 자초한 역사의 교훈 되새길 때

- 달라진 한국의 체급: 변방의 최빈국에서 메이저 리그로

- 동아시아 전략적 균형에 결정적 영향 미칠 종합국력 확보

- 세계 10위권의 경제력, 중국도 만만히 볼 수 없는 군사력과 산업기술

강국

- 20세기 후반부터 생존전략에서 선택의 폭 확대
 - 역외 강대국과의 동맹을 통한 원교근공전략 가용
 - 그러나 높아진 체급과 이에 따른 실존적 리스크를 관리할 역량이 부족
 - 미.중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설지를 두고 정신분열증세 노정
 - '안미경중론'은 정신분열증세에서 현실도피적 선택
3. 중국이 미국에 이길 수 있나?: 천영우TV 65회에 이길 수 없는 6가지 이유
- 지리적 이점, 동맹체제, 원심력과 구심력, 화폐금융 파워
 - 인구문제도 결정적 요인
 - 미국은 인구 늘어나고 세계의 인재들이 모여드는 나라
 - 중국은 향후 30년내 2억 감소, 노령인구 3억증가. 12년후 60세이상의 인구의 1/3로
 - 현재 근로자 8명이 퇴직자 1명 부양. 30년후엔 2명이 1명 부양.
 - 80년내 인구 절반으로 감소
4. 미.중간 충돌 어디서 일어날 수 있나?: 남중국해, 센카쿠 열도, 대만
- 1) 남중국해
- 항해의 자유 둘러싸고 간헐적 긴장 고조.
 - 기 싸움으로 끝날 것: 실전에서는 게임이 될 수 없다.
- 2) 센카쿠
- 미국 새 대통령 당선되면 일본이 미.일안보조약 범위 내에 있다는 확인 받

아내는 이유

- 중국 공격하면 미국은 전쟁을 통해서라도 지켜야 할 의무
- 중국지도부가 국내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리면 선택가능

3) 대만

- 1979년 수교시 중국의 일부로 인정
- 다만 Taiwan Relations Act에 따라 방어무기만 판매
- 시진핑의 무력통일 불사 발언이 노리는 것: 대만의 독립선언 막는 것
- 중국의 대만 침공하더라도 미중간 전쟁으로 비화되지는 않을 것
 - 그러나 중국의 힘을 소진시키고 재기 불능상태로 약화시킬 기회로 활용할 것

5. 한국인에게 중국은 무엇인가?

1) 대한민국의 생존과 자주독립에 대한 최대의 위협

- 역사적으로 역대 신흥 패권세력은 항상 한반도 침탈의 주범
 - 한반도를 지배하거나 한반도가 경쟁국 진영에 가담하는 것을 막는 것이 패권장악과 유지에 긴요
 - 임진왜란, 병자호란, 청일전쟁, 러일전쟁은 모두 역대 패권경쟁의 산물
- 한중간 안보이해관계는 구조적으로 대립할 수 밖에 없는 이유.

2) 경제적으로는 한국의 '엘도라도'인가?

- 무역의 25%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
- 그러나 이는 양국의 상호보완적 경제구조와 국제적 supply chain에 기인

- 한국이 공급하는 반도체와 소재, 부품이 중국 수출산업의 명줄 역할
 - 그러나 중국이 자체 생산기술과 경쟁력을 갖추면 달라질 것.
 - 수출이 수입을 압도하고 있으나 구조적으로는 중국이 한국에 의존
 - 한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저가 공산품은 다른 나라로 수입선 대체가 용이하나 중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은 대체가 거의 불가
 - 무역은 상호이익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정치적 친소관계와는 무관
 - '사드'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 중국 경제에 피해가 없는 문화.관광 분야와 중국내 롯데의 호텔.쇼핑몰에 국한된 이유
 - 중국의 산업기술 발전과 경제구조의 고도화가 장차 한국경제에 최대의 도전이 될 가능성
 - 상호보완성을 줄어들이고 경쟁분야가 증가
 - 해킹과 고급기술인력 유치를 통해 우리의 첨단기술 도용
- 3) 추구하는 근본 가치가 상반되는 나라
- 중국은 우리가 중시하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, 민주적 가치를 부정하고 말살하는 공산당 일당독재국가
 - 일당독재의 영속화를 위해 신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
 - 당과 지도부에 대한 비판 불용
 - 신장과 티벳은 소수민족의 거대한 감옥
- 4) 북한 폭압체제의 유지를 지원하는 후원자이자 통일의 방해세력
- 북한의 산소호흡기 역할
 - 북한의 핵무장을 대미 레버리지로 활용

5) 한국내 여론 조작을 위한 사이버 공격의 거점

- 중국은 한국내 친중 여론 조작을 위해 사이버 공간 적극 활용
 - 대규모의 한글 댓글 정예부대 운영, 인터넷과 SNS를 통해 국내정치에도 개입 가능성
 - 학자, 정치인, 여론지도층의 이메일 주소를 도용한 해킹 공세도 일상화
- 중국인의 한국국적 취득이 용이해지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단도 증대
 - 중국인 집중 거주지에서는 친중인사를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으로 선출도 가능

6) 중화문명의 잔재가 아직도 한국인의 의식세계를 지배

- 조선시대 주자 성리학과 위정척사사상이 한국인의 폐쇄적 세계관과 친중 사대주의 형성의 주범
- 조선의 개화와 근대화를 가로막은 위정척사사상의 DNA는 아직도 잔존
 - 모화사상과 일본을 멸시하는 자세는 중국만이 문명이고 일본은 야만이라는 이분법적 인식구조의 잔재
- 문대통령의 2017.12.15 북경대 연설에 나타난 중국에 대한 인식
 - "높은 산 봉우리"
 - "한국도 작은 나라지만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그 꿈에 함께 할 것"
 - 중국의 착한 속국이 되겠다는 맹세로 해석될 언급
- 주사파들의 친중 사대주의는 재조지은과 모택동 사상에 대한 막연한 동경에 기인 가능성

6. '중국몽'은 한국에게 무엇인가?

- 목숨걸고 막아야 할 악몽.
 - 중국의 패권시대, '신형 조공관계'로 돌아가는 것
- 한미동맹의 해체가 '중국몽' 실현에 필수적
 - '사드 3불합의'가 그 전조: 중국의 이익과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만 주권 인정

7. 중국의 강압과 패권적 횡포에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?

- 중국의 각개 격파전략에 혼자서 맞서면 승산 없다.
- 자강+다층적 보험+헤징으로 정교한 생존전략 구사
- 어디에 보험을 들것인가?
 - 한반도에 영토적 야망이 없고,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을 공유하고, 중국 견제에 이해관계 공유하는 국가
 - 악마와도 동침할 수 있다는 현실주의적 자세 필요
- 1차 보험은 한.미 동맹
 - 동맹의 생명은 신뢰
 - 한미 동맹은 중국의 위협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대항할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뼉.
 - 한국을 겁박하는 건 미국에 대한 도발이라는 분명한 인식 갖도록 해야.
- 한미동맹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한.미.일 3자 안보협력을 추진
 - 3국간 공조가 중국을 견제하는데 필수적
- 인.태지역 차원에서 중국 견제 위해 'Quad+'에 참여

- 아직은 Quad의 실체가 불분명하나 중국 견제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핵심 이해당사자간 협의체로 진화 예상
- 실체가 갖춰지기 전에 목표와 방향, 원칙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발언권 행사하고 우리 이익 반영해야
- 한국의 역내 입지와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안보협력체 수립 논의가 우리가 불참한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:
Nothing about us without us 원칙 견지
- 중국의 각개격파식 강압과 보복에 집단 대응할 체제로 활용 가능: 1개국에 대한 보복은 Quad+ 전체에 대한 보복으로 간주
- 미국의 반중 과잉을 견제하는데도 유용

8. 헤징 전략도 병행할 필요

- 피할 수 있는 위험은 최대한 피할 것
- 미국의 대중견제 정책에는 우리 국익과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 동참
 - 미국의 일시적 국내정치적 수요에 따른 무리한 반중정책과는 일정한 거리를 둘 필요
- 중국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책 수립
 - 안보분야에서의 위협뿐 아니라 경제분야에서의 도전도 과소평가하지 말 것
 - 안보이해관계가 대립되지 않은 나라로 무역 다변화 추진하여 경제 의존도를 줄여나가야
 -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비해서 기업의 탈중국과 국내 리쇼어링을 지원해야